

종합·국제



북핵 검증 의정서 채택될까

오늘 베이징서 6자회담...비핵화 2단계 완료 시점도 확정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8일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개막한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만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검증할 의정서 채택을 추진하고...

김 본부장과 힐 차관보 및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미국대 회동을 갖고 회담 전략을 조율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전날 베이징에 들어왔다. 김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6자회담은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대북 중유지원)와 3단계(핵포기)를 잇는 연결고리 성격의 회담으로 아주 중요하다"면서도 전

망은 묻는 질문에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의정서 채택 ▲비핵화 2단계 완료 시점 재조정 ▲3단계에 대한 예비 논의 등이 이번 회담의 의제라고 소개한 뒤 "특히 검증문제는 비핵화 전 과정에 걸쳐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 검증의정서 채택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등은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지만 북

한은 시료채취는 추후 핵포기 협상에 서 이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당초 지난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비핵화 2단계 회담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6자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담은 10일까지 사흘에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1~2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회담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50년대 이후 최대 규모 인프라 투자

오바마 新뉴딜정책 발표 "일자리 250만개 새로 만들어 낼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21세기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 취임 후 신 뉴딜정책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공건물 건립과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확충 등을 통해 250만 개의 일자리를 지켜내거나 새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단일 규모로는 최대 신규 투자를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간단한 규칙을 만들겠다며 주(州) 정부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간접투자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할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면서 "철단 컴퓨터 교육장비와 설

비를 갖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인 학교 시설물을 건립해 21세기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뉴딜정책 구성 발표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인 광대역 통신(브로드밴드)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겠다는 내용이 이례적으로 강조됐다. 오바마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이러한 신 뉴딜정책 구성을 추진할 수 있게 의회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민주-백악관 車업계 15억달러 지원 합의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자동차 업계에 15억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이날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조슈아 블턴 백악

관 비서실장이 전화회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내주 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틀간 계속된 의회 청문회와 최

의 실행을 감안할 때 의회가 자동차업계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6일 성명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과 자동차업계 지원문제를 통해 "법안이 내주 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틀간 계속된 의회 청문회와 최

北 12·1 조치 일주일 통행 인원·횡수 줄어 불편, 교류협력 사업 차질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개성공단과 기타 남북경협,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등 분야별 영향도 가시화 하고 있다. 북측이 '기업활동을 특별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던 개성공단은 통행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협·교역 업체들은 남북경협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의 폐쇄로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북한은 애초 12·1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기업활동을 특별적으로 보장한다고 했지만 남북 경협에서 차지는 비중이 절대적인 개성공단이 북측의 고강도 통행 제한 조치의 영향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기업들로서는 상주인원 제한(총 880명)도 불편하지만 그보다는 통행횟수가 편도기준으로 하루 19회에서 6회로 줄어듦과 통행 가능인원이 매 시간대별로 인원 250명, 차량 150대 이하로 감소되며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재기'하듯 통행일출입등록시스템 상의 출입 계획을 과도하게

선정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경협 또는 교역 사업자들도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시간적·공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 상거래와 교류협력 목적의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12·1 조치로 인해 개성과 금강산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평양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사업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7년만에 정권교체 '눈 앞' 민주 聯政 착수

태국의 유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당인 국민회의(PPP) 일부 계파를 흡수하고 다른 4개 군소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7년만에 정권 교체를 눈앞에 뒀다. 민주당을 비롯한 이들 군소정당과 PPP의 중도파인 '뉴인 치츄'파의 대표들은 6일(현지시간) 밤 방콕 시내 수코타이 호텔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연정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업 타옥수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연정 합의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분열된 사회의 통합과 국가 신뢰 및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연정 합의로 민주당 중심의 정당연합은 원내 과반수(221석)를 훌쩍 넘는 252석을 확보하게 됐으며 야비시 웨짜지와 총재가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태국의 하원은 직능대표를 포함, 모두 480석이지만 각종 사법처리와 헌법재판소의 정치활동금지 명령에 따라 40명이 의원직을 사퇴해 441석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들 정당별로 보면 PPP가 213석으로 가장 많고 푸에아판딘 23석, 차타이 15, 마차마티파타야 11, '루앙자이 타이차트 파타나' 9, 프라차랏 5석 등 집권정당연합 소속이 모두 276석이며 민주당이 165석이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전국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H.010-3686-8446.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Gwanak, Jamsil, and Songdeok.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심. 백암 울릉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3만 5천원. [주]나산항공관광여행사. Itinerary and pricing for a 2-night 3-day trip to Baekam Hot Springs and Ulleungdo.